

물리치료사의 근무실태와 직무만족 및 직장에착

부산가톨릭 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안 소윤

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김 원중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허 영배

Working Condition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Physical Therapists

Ahn Soyoun, P.T., Ph.D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Kim Won-Joong, Ph.D

Department of Health Care Administration, Inje University

Huh Young-Bae, P.T., M.S.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Inje University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working conditions of physical therapists and to investigate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under different working conditions. A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 for the physical therapists working in Busan area, and data from 175 therapists were utilized in the final analysis. Survey items included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therapists (sex, age, education, marital status, religion, income, career years, etc.), their working conditions (kinds of organizations they work in, location of PT room, weekly working hours, average number of patients, number of co-workers, equipments/facilities, etc.),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measured in terms of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1) As for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ed physical therapists, male(51.4%) slightly exceeded female(48.6%) and majority (more than 90%) was 20-39 in age. Also, there were more single(57.7%) than married(42.3%), and 54.9% of the respondents had religion while 45.1% did not. In terms of the ranks in their organizations, only a few of them(6.9%) were managers, and monthly salary mostly ranged from ₩1,000,000 to ₩2,500,000. More than half of them worked in various kinds of hospitals, with the remaining in health centers or social welfare institutions.

2) In regard to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respondents, 19.4% of PT rooms were located in basement areas while the remaining 80.6% in first to third floors. 34.3% of them treated 15 patients or less per day, whereas 25.1% treated 31 patients or more. Also, 52% recorded physical therapy charts periodically. As for the equipments and facilities, 25.1% felt 'sufficient' and 40% 'insufficient.'

3) The respondents provided various kinds of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working conditions, where the most important were 'salary raise' and 'reduction of working hours.' In addition, their requests to the PT Association included 'permission of opening of independent practice,' 'permission of legal specialty,' and 'vitalization of the Association.'

4) The comparative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reveal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but in terms of age, the group of 40 or older was highest in both aspects. Besides, therapists who had 15 or more years of hospital career reported higher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an the others. It was also found that the level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increased as the rank of the respondents got high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rms of marital status and religion.

5) Comparison with regard to working conditions showed that therapists employed in university hospitals, health centers and social welfare institutions felt higher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an those in community hospitals and clinics. Also, respondents who worked in basement areas had significantly lower job satisfaction than otherwise. The length of weekly working hours did not really affect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but it was important to maintain 'regular working hours' for the hospitals to improve the employees'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for the number of patients per day, 'medium level'(21-25 patients) had highest scores in both aspects. And, finally, sufficiency of equipments and facilities was found to be important for the improvemen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key words: *physical therapists, working condition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hospital management*

I. 서론

의학의 발달로 만성 질환자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각종 사고로 인한 장애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물리치료의 필요성이 급증하게 되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기능 회복을 위해 재활 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환자를 격려하여 손상 받은 기능을 정상에 가깝게 개선하는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물리치료 대상 환자는 장애를 갖고 있고 손상 전의 상태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환자와 가족의 치료목표가 현실성이 없을 경우가 많고 환자의 문제점을 물리치료사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경우도 빈번하다. 환자 한사람 한사람에게 제공되는 치료와 관리는 환자의 회복에 직접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관리하는 일은 환자 각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 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하고 있다. 물리치료사는 직무에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만족도를 높여 조직 내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환자에게 효율적으로 치료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한금림, 1994). 따라서 물리치료사가 해야 할 고유의 업무가 존중되어야 하고 적절한 근무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물리치료사가 받는 업무 관련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근무기관, 일 일 치료환자 수, 직무만족과 요통의 순 이었다(이충휘, 1990). 물리치료사는 직무의 중요성과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때와 자율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 할 때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제균, 1991). 직무와 관련된 과도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삶의 만족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직무동기를 낮추고, 실수와 사고를 증가시켜서 결국에 조직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조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최은경, 2000). 물리치료사고에 대한 물리치료사의 인식도 조사에서 물리치료사의 업무 과중이 가장 높은 원인이었다(김중대, 2002).

물리치료사는 대부분 장기간을 요하는 환자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며 또한 다양한 전문직들과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보다 많은 직무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는 물리치료사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직무만족과 직장애착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물리치료사의 일반적인 근무실태와 직무만족 수준을 알아보고 직장애착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의료기관 경영이나 물리치료사에 대한 인사 및 조직관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물리치료사의 전문성과 복지 향상은 물론 물리치료사 협회를 위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첫째, 물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과 근무실태를 조사한다. 둘째, 물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 및 근무환경별로 직무만족과 직장애착의 정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분석결과가 물리치료사의 업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수립과 물리치료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부산지역의 의료기관이나 보건관련기관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200명을 선정하였다. 2002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직접전달, 자기기입, 직접수거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회수된 설문지는 175부로 응답률은 87.5%이었다.

2. 설문내용과 변수측정

설문지는 물리치료사의 근무실태에 관한 문항 28개와 직무만족과 직장애착에 관한 문항 84개로 작성되었고 무기명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물리치료사의 근무실태에 관한 문항은 전제균(1991)과 이충휘(1990)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직무만족에 관한 문항은 직무자체, 경제적 보수, 승진 전망, 작업환경, 권한 위임, 성장 가능성 등의 요소가 포함되며 그에 따라 7개 문항을 설문하였고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직장애착에 관한 문항은 구체적으로 감정적 애착심, 업무열의, 의무감, 조직방침에 대한 동의, 조직장래에 대한 관심 등 7개 문항을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자료분석

설문의 응답결과는 SPSSWIN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처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산출을 수행하였으며, 대상자들을 인구사회학적 및 근무환경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직무만족과 직장에착 수준을 비교할 목적으로 평균비교 (t/F 검정)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근무환경별 특성을 조사하고 10여 년 전의 특성과 변화정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근무환경별 특성은 물리치료 보조원의 역할과 물리치료 기록지 사용 여부, 물리치료 장비와 평가용 기기 보유정도, 현 근무상태에서 개선을 원하는 점과 물리치료사 협회에 대한 요구 등에 대해 조사 검토하고자 한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 에 제시되었다. 여기에서 보면, 성별로는 남녀가 비슷하고 연령은 주로 20~39세로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은 전문대졸이 다수(68.0%)이고 대졸(21.1%)이 다음이며 소수의 대학원졸(10.9%)도 포함되었다. 결혼여부는 미혼자(57.7%)가 기혼자(42.3%)보다 다소 많았고, 종교는 가지고 있는 사람(54.9%)이 없는 사람(45.1%)보다 다소 많았다. 직급은 대부분이 일반직(71.4%)이었으나 과장급 이상도 소수(6.9%) 포함되었다.

병원 근무경력이 5년 미만에서 10년(82.3%) 사이가 가장 많았고 10~15년이 12.0 % 이었다. 라기용 등(1998)의 연구는 임상경력이 5년 이하가 5.19%, 5~10년이 44.81%, 10~15년이 19.67%를 보여주었다. 끝으로, 월급은 주로 100~250만원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01~150만원 범주가 가장 다수(52.6%)를 차지하였다. 라기용 등(1998)은 연봉이 남자가 2000만원 이상이 22.67%, 여자가 1200-1400만원대가 35.36%로 보고하였다. 진제균(1991)의 연구는 월급이 72.3%가 50만원 미만, 50-80만원이 23.3%로 조사되었다. 90년대보다는 개선이 되는 추세이지만 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분명한 임금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특성 | 구분 | 빈도 | % |
|-------|-----------|-----|-------|
| 성별 | 남 | 47 | 27.0 |
| | 여 | 85 | 48.6 |
| 연령 | 29세 이하 | 37 | 21.3 |
| | 30~39세 | 80 | 45.7 |
| | 40세 이상 | 16 | 9.1 |
| 학력 | 전문대졸 | 119 | 68.0 |
| | 대졸 | 37 | 21.1 |
| | 대학원졸 | 19 | 10.9 |
| 결혼여부 | 기혼 | 74 | 42.3 |
| | 미혼 | 101 | 57.7 |
| 종교 | 유 | 96 | 54.9 |
| | 무 | 79 | 45.1 |
| 병원경력 | 5년미만 | 109 | 62.3 |
| | 5-10년 | 35 | 20.0 |
| | 10-15년 | 21 | 12.0 |
| | 15년이상 | 10 | 5.7 |
| 직급 | 과장 이상 | 12 | 6.9 |
| | 계장급 | 10 | 5.7 |
| | 주임급 | 28 | 16.0 |
| | 일반 | 125 | 71.4 |
| 월평균급여 | 100만원이하 | 26 | 14.9 |
| | 101~150만원 | 92 | 52.6 |
| | 151~200만원 | 36 | 20.6 |
| | 201~250만원 | 11 | 6.3 |
| | 251만원 | 10 | 5.7 |
| 합계 | | 175 | 100.0 |

2) 조사대상자의 근무환경 특성

표 2. 는 조사대상자의 근무환경 특성을 조사한 것이다. 근무기관은 병원, 의원, 보건소, 복지관 등 다양하나 병원·종합병원이 반수 가량(50.9%)을 차지하였고, 병상규모는 100병상 미만이 35.4%로 가장 많았고 500병상 이상이 30.9% 이었다. 라기용 등(1998)은 종합병원에서 31.89%, 병원 급에서 17.03%가 일한다고 보고하였고 권혁철(1996)은 종합병원에서 24%, 병원 급에서 18.6%로 근무한다고 하였다.

치료실의 위치는 대부분의 치료실은 1-3층 이상 사이에 있었고(80.6%), 2층이 40.6%로 가장 많았고 지하는 19.4%이었다. 전제균(1991)은 41.3%가 지하에서 근무한다고 보고하였다. 10여 년 후의 조사에서 지하층의 물리치료실의 수가 절반으로 감소 한 것은 환자와 치료사를 위한 바람직한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주당 근무시간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인 44시간 이하 근무하는 물리치료사가 26.4% 이었고 44시간 이상 일하는 치료사가 73.6% 이었다. 이충휘(1990)는 44시간 일하는 치료사가 67.2%로 보고하였고 김명훈(2001)은 82.74%가 44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이 법정

근무시간을 넘어섰을 때는 상당한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직의도가 높다고 하였다.

하루 평균 치료환자 수는 15명 이하가 34.3%이고 31명 이상이 25.1%로 대다수(74.9%)의 치료사는 30명 이하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다. 일일 평균 30명 이하 치료하는 치료사가 김인숙(1990)은 39.5%, 전제균(1991)은 36.9%, 라기용등(1998)은 48.45%라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30명으로 제시된 물리치료사의 일일 치료환자 수가 점차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의원급에서도 물리치료실의 개원이 많아지면서 환자 분산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예측한다. 동료 물리치료사 수가 5인 미만이 38.3%이고 9인 이하가 37.1%로 비슷하였고 24.6%의 치료사가 10인 이상의 동료들과 근무하였다. 92.6%의 치료사가 야간당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물리치료 보조원의 근무 여부와 역할에 대한 내용이다. 물리치료사 보조원과 함께 일하는 치료사가 48.6% 이었다. 보조원의 업무는 치료실 관리와 청소(82.8%), 기기정리(77.6%)가 주된 일이었다고 12.6%가 간단한 치료를 도왔다. 86.9%의 물리치료사가 소소한 잡무로부터 벗어나 치료업무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보조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물리치료 기록지 사용에 관한 사항은 표 4.에 있다. 물리치료 기록을 주기적으로 하는 치료사가 52.0%이었고 치료여부만 체크하거나 기록지가 없는 경우가 43.4%이었다. 하루 업무 중 물리치료 기록을 하는 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가 44.0%이었고 30분 미만이 35.4%이며 20.6%만이 30분에서 1시간이상 걸렸다. 주기적인 기록을 하지 않는 이유는 기록할 필요가 없거나(95.4%) 병원의 요청이 없어서(87.4%), 기록할 내용이 없어서(86.3%), 환자의 진전이 없어서(85.7%)로 가장 주된 이유였고 마땅한 기록지와 기록방법의 부재(73.7%)와 시간부족(62.3%)이 그 다음 문제점이었다. 라기용등(1998)은 평가지를 작성하는 경우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60.63%이었고 기록하지 못하는 이유가 시간이 없다는 55.51%로 가장 많았고 12.13%가 기록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라고 보고하였다. 물리치료 임상기록은 물리치료사와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의 관리와 치료행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모든 치료 사실과 그 결과를 입증 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한다(홍준현1979, 대한의학협회,1983). 물리치료사는 건강을 관리하는 의료 전문가로서 자신이 환자에게 제공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배성수와 김중선, 1998, 김명훈 등 1993)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실천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 특히 물리치료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기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병원에서는 실질적인 기록방법과 기록에 대한 실기를 배울 기회가 많아져야 할 것이다.

표. 5는 물리치료실 장비와 치료방법 사용 빈도를 조사 한 것이다. 보유하고 있는 물리치료실 장비와 기자재는 '보통'이 34.9%이고 '불충분' 이 40%이었다. 앞으로 더 필요한 장비는 '운동치료 기기(74.9%)'로 가장 많이 요구되었고 '컴퓨터'가 45.7%, '평가용 기기'가 40.6% 순 이었고 '전기광선치료기의 필요성'은 16%이었다. 하루 치료하는 중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치료방법은 'Modalities를 사용한 전기/광선/열/냉치료'가 22.65%로 가장 많았고 운동치료분야에서 '수동운동(10.15%)', '능동운동(7.94%)', '신경생리학적 접근(NDT, PNF, Vojta)'이 5.59%등이었다.

물리치료사의 절반 가량이 현 근무지에서 개선되기 원하는 사항은 임금인상(48.6%)과 근무시간/환경 개선(40.4%) 이었다. 라기용 등(1998)은 응답자의 35.5%가 현 직장에 그런 대로 만족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충휘(1990)는 응답자의 45.3%가 물리치료사 직무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물리치료협회에 대한 건의 사항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단독개설 추진(73.1%)이고 대다수

의 물리치료사는 전문 물리치료사제도의 추진, 물리치료사협회의 활성화, 전국 물리치료 대학의 4년제 추진과 대학원과정 증설, 일일 적정 치료환자수의 감소 등이었다(표. 6). 물리치료실의 자립개설에 대한 물리치료사의 의식도를 조사하는 연구에서 제도의 법적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가 75.3%이었고(남철현등 2001), 송주영등(1996)은 미국의 독립된 물리치료개념을 인용하여 시간, 경비를 줄이고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도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고 능력을 검증 받은 물리치료사가 적절한 시기에 자립개설 하는 일을 위해 협회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업무 환경

| 특성 | 구분 | 빈도 | % |
|-----------|-----------|-----|-------|
| 근무기관 | 대학병원 | 30 | 7.1 |
| | 종합병원 | 89 | 50.9 |
| | 의원 | 24 | 13.7 |
| | 한의원 | 12 | 6.9 |
| | 복지관/재활원 | 13 | 7.5 |
| | 보건소/기타 | 7 | 4.0 |
| 병상규모 | 100병상미만 | 62 | 35.4 |
| | 100-299병상 | 34 | 19.4 |
| | 300-499병상 | 25 | 14.3 |
| | 500병상이상 | 54 | 30.9 |
| 치료실위치 | 1층 | 18 | 10.3 |
| | 2층 | 71 | 40.6 |
| | 3층 이상 | 52 | 29.7 |
| | 지하 | 34 | 19.4 |
| 주당근무시간 | 44시간이하 | 46 | 26.4 |
| | 45-50시간 | 87 | 50.0 |
| | 50시간이상 | 41 | 23.6 |
| 일평균 치료환자수 | 15명 이하 | 60 | 34.3 |
| | 16-20명 | 20 | 11.4 |
| | 21-25명 | 24 | 13.7 |
| | 26-30명 | 27 | 15.4 |
| 동료인원수 | 31명 이상 | 44 | 25.1 |
| | 5인 미만 | 67 | 38.3 |
| | 5-9인 | 65 | 37.1 |
| 야간당직 | 10인 이상 | 43 | 24.6 |
| | 유 | 13 | 7.4 |
| | 무 | 162 | 92.6 |
| | | 175 | 100.0 |

표. 3 물리치료 보조원의 역할

| 특성 | 구분 | 빈도 | % |
|---------------|--------|-----|------|
| 보조원 | 유 | 85 | 48.6 |
| | 무 | 90 | 51.4 |
| 보조원의 업무 | 기기 정리 | 135 | 77.6 |
| | 관리와 청소 | 144 | 82.8 |
| | 간단한 치료 | 22 | 12.6 |
| 보조원의 필요성 피로감소 | 업무전담가능 | 19 | 10.9 |
| | | 152 | 86.9 |

표. 4 물리치료 기록지 사용

| 특성 | 구분 | 빈도 | % |
|--------------|------------|-----|------|
| 기록방법 | 주기적 | 91 | 52.0 |
| | 시작/종료 시 | 8 | 4.6 |
| | 치료여부만 체크 | 56 | 32.0 |
| | 기록지가 없음 | 20 | 11.4 |
| 기록시간 | 10분 미만 | 77 | 44.0 |
| | 30분 미만 | 62 | 35.4 |
| | 30-60분 | 31 | 17.7 |
| | 1시간 이상 | 5 | 2.9 |
| 주기적인 | 기록방법 부재 | 129 | 73.7 |
| 기록을 하지 않는 이유 | 진전이 없어서 | 150 | 85.7 |
| 기록할 내용이 없음 | 기록할 내용이 없음 | 151 | 86.3 |
| | 시간부족 | 109 | 62.3 |
| | 기록할 필요가 없음 | 167 | 95.4 |
| | 병원의 요청이 없음 | 153 | 87.4 |

표. 5 물리치료실 장비와 치료방법

| 특성 | 구분 | 빈도 | % |
|----------------|---------------|-----|-------|
| 보유장비/시설 | 매우 충분 | 6 | 3.4 |
| | 약간 충분 | 38 | 21.7 |
| | 보통 | 61 | 34.9 |
| | 약간 불충분 | 52 | 29.7 |
| | 매우 불충분 | 18 | 10.3 |
| 필요장비 | 평가용 기기 | 71 | 40.6 |
| | 운동치료 기기 | 131 | 74.9 |
| | 수치료 장비 | 39 | 22.3 |
| | 전기광선 치료기 | 28 | 16 |
| | 컴퓨터/사무 기기 | 80 | 45.7 |
| | 필요 없음 | 4 | 2.3 |
| 치료방법 (사용횟수) | 전기광선열냉치료 | 18 | 22.65 |
| | 수동운동 | 10 | 10.15 |
| | 능동운동 | 5 | 7.94 |
| | NDT/PNF/Vojta | 3 | 5.59 |
| | Mat운동/ADL | 2 | 5.04 |
| | 평가 | 2 | 4.91 |

표. 6 물리치료 업무개선점

| 특성 | 구분 | 빈도 | % |
|------|---------------|-----|------|
| 근무처 | 임금인상 | 85 | 48.6 |
| 개선사항 | 근무시간/환경 | 70 | 40.4 |
| | 인격적 대우 | 6 | 3.4 |
| | 승진 | 4 | 2.3 |
| | 기타 | 10 | 5.7 |
| 협회 | 4년제로 교육연한 연장 | 97 | 55.4 |
| 개선사항 | 대학원과정 증설 | 108 | 61.7 |
| | 전문 물리치료사제도 추진 | 119 | 68.0 |
| | 물리치료사협회 활성화 | 112 | 64.0 |
| | 가정방문치료사제도 추진 | 98 | 56.0 |
| | 일일 치료환자수 감소 | 107 | 61.1 |
| | 단독개설 추진 | 128 | 73.1 |

2. 근무실태별 직무만족과 직장애착

본 절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근무환경별로 직무만족(Job Satisfaction)과 직장애착(Organizational Commitment)의 정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직무만족은 종업원이 자기의 직무에 대하여 갖는 정서적 지향의 정도, 즉, 종업원이 자기의 직무를 좋아하는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직장애착은 직장(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귀속감을 바탕

으로 조직의 가치와 목표를 수용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두 변인 모두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 일반적 특성별 직무만족과 직장에착

조사대상자의 일반적(개인적) 특성별로 직무만족과 직장에착을 비교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자의 직무만족 평균이 2.53(4점 척도), 여자가 2.51로서 별 차이가 없으며, 직장에착의 경우에는 다소 높아 각각 2.61과 2.60을 기록하고 있으나 역시 남녀간에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40세 이상에서 뚜렷이 직무만족과 직장에착이 높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륜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물리치료 업무가 적성에 맞고 근무조건이나 직장자체에도 만족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하며 고 연령층의 경우 직급이나 보수 등이 높을 것이라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학력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대졸 이상의 직무만족이 전문대졸보다 약간(10% 유의수준)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전문지식이 증가할수록 단순업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과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밖에 결혼이나 종교별로는 조사대상자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한편, 일반적(개인적) 특성 중에서도 위에서 살펴 본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외에 병원 근무경력, 직급, 월 평균 급여 등 업무관련 특성별로 직무만족과 직장에착을 비교해 보면 유의한 차이가 보다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먼저, 병원경력별로는 15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상인 경우에 현저하게 직무만족과 직장에착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근무경력도 연령과 비례하므로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적성이나 근무조건 등의 적합성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며, 일면으로는 '오래 된' 근무자의 경우 직장이동 등에서 별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므로 현 직장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경우도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직급 및 월급별 비교에 있어서는 직무만족의 경우 직급간이나 월 급여 액수별로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직장에착은 직급이 높아질수록 뚜렷이 증가하며 월 급여별로도 차이가 나는 사실이 흥미롭다. 결국 직무만족은 본질적으로 '일 자체'에 관련된 문제이며, 직장에 대한 귀속감·충성심 등은 역시 승진에 직접적으로 비례하고 급여와도 관련이 있는 사안임을 알 수 있다.

표 7. 일반적 특성별 직무만족과 직장에착

평균(표준편차)

| 구 분 | 직무만족 | t / F | 직장애착 | t / F | |
|------|-----------|------------|--------|------------|--------|
| 성 별 | 남 | 2.53(0.32) | 0.39 | 2.61(0.34) | 0.31 |
| | 여 | 2.51(0.33) | | 2.60(0.34) | |
| 연 령 | 29세 이하 | 2.54(0.27) | 2.60* | 2.55(0.35) | 3.95** |
| | 30~39세 | 2.47(0.36) | | 2.62(0.31) | |
| | 40세 이상 | 2.66(0.33) | | 2.80(0.40) | |
| 학 력 | 대졸 이상 | 2.46(0.32) | -1.72* | 2.63(0.31) | 0.65 |
| | 전문대졸 | 2.55(0.33) | | 2.59(0.35) | |
| 결 혼 | 기혼 | 2.52(0.32) | -0.12 | 2.62(0.30) | 0.55 |
| | 미혼 | 2.52(0.34) | | 2.59(0.37) | |
| 종 교 | 유 | 2.54(0.32) | 0.86 | 2.63(0.35) | 1.13 |
| | 무 | 2.50(0.34) | | 2.57(0.33) | |
| 병원경력 | 5년 미만 | 2.53(0.31) | 3.45** | 2.56(0.34) | 3.26** |
| | 5~10년 | 2.42(0.36) | | 2.63(0.32) | |
| | 10~15년 | 2.53(0.32) | | 2.62(0.30) | |
| | 15년 이상 | 2.79(0.31) | | 2.90(0.39) | |
| 직 급 | 과장 이상 | 2.70(0.40) | 1.74 | 2.85(0.37) | 3.47** |
| | 계장급 | 2.61(0.25) | | 2.77(0.24) | |
| | 주임급 | 2.51(0.30) | | 2.60(0.29) | |
| | 일 반 | 2.52(0.33) | | 2.57(0.34) | |
| 월급여 | 100만원 이하 | 2.54(0.34) | 0.73 | 2.63(0.28) | 2.46** |
| | 101~150만원 | 2.48(0.32) | | 2.54(0.36) | |
| | 151~200만원 | 2.56(0.32) | | 2.71(0.27) | |
| | 201~250만원 | 2.56(0.25) | | 2.53(0.30) | |
| | 251만원 이상 | 2.61(0.48) | | 2.77(0.43) | |

* p<0.1 ** p<0.05 *** p<0.01

표 8. 근무환경별 직무만족과 직장에착

평균(표준편차)

| 구 분 | 직무만족 | t / F | 직장에착 | t / F |
|--------------|------------|---------|------------|---------|
| 근무기관 대학병원 | 2.62(0.37) | 0.68* | 2.70(0.31) | 2.89** |
| 병원/종합병원 | 2.46(0.32) | | 2.54(0.37) | |
| 의원급 | 2.54(0.32) | | 2.61(0.29) | |
| 기 타 | 2.60(0.33) | | 2.74(0.27) | |
| 치료실 1층 | 2.52(0.30) | 9.93*** | 2.63(0.33) | 2.06 |
| 위 치 2층 | 2.61(0.30) | | 2.67(0.30) | |
| 3층 이상 | 2.56(0.30) | | 2.52(0.37) | |
| 지하실 | 2.27(0.32) | | 2.58(0.36) | |
| 동 료 5인 미만 | 2.53(0.33) | 2.62* | 2.60(0.31) | 1.16 |
| 인원수 5~9인 | 2.45(0.30) | | 2.56(0.35) | |
| 10인 이상 | 2.60(0.35) | | 2.66(0.36) | |
| 보조원 유 | 2.48(0.36) | -1.59 | 2.56(0.35) | -1.46 |
| 무 | 2.58(0.29) | | 2.64(0.33) | |
| 주 당 44시간이하 | 2.55(0.34) | 0.37 | 2.71(0.39) | 3.92** |
| 근무시간 44~50시간 | 2.50(0.32) | | 2.54(0.31) | |
| 50시간이상 | 2.53(0.33) | | 2.62(0.33) | |
| 일평균 15명 이하 | 2.59(0.30) | 3.63*** | 2.67(0.32) | 6.48*** |
| 환자수 16~20명 | 2.59(0.26) | | 2.63(0.32) | |
| 21~25명 | 2.63(0.33) | | 2.77(0.35) | |
| 26~30명 | 2.39(0.32) | | 2.61(0.33) | |
| 31명 이상 | 2.43(0.34) | | 2.41(0.29) | |
| 기록방법 주기적 | 2.59(0.32) | 3.92** | 2.65(0.35) | 2.17* |
| 시작종료시 | 2.59(0.30) | | 2.61(0.43) | |
| 치료여부만 | 2.43(0.31) | | 2.51(0.31) | |
| 기록지없음 | 2.41(0.32) | | 2.63(0.33) | |
| 보유장비 불충분 | 2.47(0.31) | 1.55 | 2.53(0.35) | 3.16** |
| 보 통 | 2.57(0.35) | | 2.67(0.31) | |
| 충 분 | 2.54(0.30) | | 2.64(0.34) | |

* p<0.1 ** p<0.05 *** p<0.01

2) 근무환경별 직무만족과 직장에착

표. 8 은 조사대상자의 근무환경별로 직무만족과 직장에착을 비교한 결과이다. 먼저 근무기관별로는 대학병원이나 기타(보건소, 복지관 등)의 경우가 병원이나 의원급에 비하여 직무만족과 직장에착이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근무기관의 제반 조건이나 안정성, 장래성 등에서의 차이점을 반영하고 있다. 근무기관 내에서의 물리치료실 위치도 관심이 가는 사항인데, 1~3층의 경우에는 직무만족도에서 별 차이가 없었으나 지하실에서 근무하는 치료사는 현격하게 만족도가 낮아 쾌적한 작업환경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동료 물리치료사수와의 관련성을 보면, 5인 미만이나 10인 이상의 경우가 5~9인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은 바, 이는 앞서 근무기관별 분석에 있어서 대학병원(대규모)이나 보건소/복지관(소규모) 근무자가 병·의원급(중규모) 근무자보다 높은 직무만족을 느끼는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물리치료실 위치나 동료 인원수 모두 직장에착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간호조무사 등 보조원의 존재 여부도 물리치료사의 잡무를 덜어주는 점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나 직무만족 및 직장에착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물리치료사의 업무량 관련사항으로서 주당 근무시간 및 일 평균 치료환자 수별로 직무만족과 직장에착을 비교해보면, 근무시간의 경우 직무만족도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반면 직장에착은 44시간 이하가 그 이상에 비하여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업무 자체에 만족하고 열중하는 치료사는 근무시간의 길이에 크게 유념하지는 않지만 근무기관이 44시간(평일 8시간과 토요일 4시간) 이하로 '정상적'인 업무일과를 유지할 경우 직장에 대한 애착심은 향상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 평균 치료환자 수별 비교에 있어서는 흥미로운 경향이 발견되는데, 직무만족이나 직장에착 공히 중간수준(21~25명)에서 가장 높다는 점이 그것으로서, 일평균 환자수가 26명이 넘어서면 두 변인 모두 현격히 저하되며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감소하고 있다. 이는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와 직장에착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업무량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리치료 기록지에 기록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직무만족과 직장에착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기록지에 '주기적으로 기록'하거나 '치료 시작과 종료 시에 기록'하는 경우가 '치료한 날짜 여부만 기록'하거나 '기록지 없이 명단만 기록'하는 경우에 비하여 양변인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역으로, 즉, 기록방법이 직무만족이나 직장에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고 애착심이 있는 근무자가 보다 충실하게 기록지를 정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물리치료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충분성 여부별로 직무만족과 직장에착을 비교해 보면, 직무만족의 경우는 응답자간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으나 직장에착은 '불충분'으로 응답한 사람이 '보통'이나 '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기자재나 시설 등은 근무기관(직장)의 경영방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보다는 직장에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IV. 결론

본 조사는 부산지역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175명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근무실태와 근무환경별 직무만족과 직장에착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기본적인 방법은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으로서, 조사대상은 부산지역의 의료기관이나 보건관련기관에서 근무하는 물

리치료사 200명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접 전달 및 자기 기입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2002년 3월), 최종적으로 회수된 설문지는 175부로서(응답률 87.5%), 이를 분석하고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로는 남자가 90명(51.4%)이고 여자가 48.6% 이었다. 연령은 주로 20~39세로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은 전문대졸이 다수(68.0%)이고 대졸(21.1%)이 다음이며 소수의 대학원졸(10.9%)도 포함되었다. 결혼여부는 미혼자(57.7%)가 기혼자(42.3%)보다 다소 많았고, 종교는 가지고 있는 사람(54.9%)이 없는 사람(45.1%)보다 다소 많았다. 직급은 대부분이 일반직(71.4%)이었으나 과장급 이상도 소수(6.9%) 포함되었다. 병원 근무경력이 5년 미만에서 10년(82.3%) 사이가 가장 많았고 10~15년이 12.0% 이었다. 월 급여는 주로 100~250만원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01~150만원 범주가 가장 다수(52.6%)를 차지하였다.

2. 근무기관은 병원·종합병원이 반수 가량(50.9%)을 차지하였고, 병상규모는 100병상 미만이 35.4%로 가장 많았고 500병상 이상이 30.9% 이었다. 치료실의 위치는 대부분의 치료실은 1~3층 이상 사이에 있었고(80.6%), 지하는 19.4%이었다.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 이상 일하는 치료사가 73.6% 이었다. 하루 평균 치료환자 수는 대다수(74.9%)의 치료사는 30명 이하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다. 물리치료사 보조원과 함께 일하는 치료사가 48.6% 이었다. 86.9%의 물리치료사가 소소한 잡무로부터 벗어나 치료업무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보조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물리치료 기록을 주기적으로 하는 치료사가 52.0%이었고 치료여부만 체크하거나 기록지가 없는 경우가 43.4%이었다. 하루 업무 중 물리치료 기록을 하는 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가 44.0%이었고 30분 미만이 35.4%이며 20.6%가 30분에서 1시간이상 걸렸다.

보유하고 있는 물리치료실 장비와 기자재는 보통이다가 34.9%이고 불충분 하다가 40%이었다.

3. 물리치료사의 절반 가량이 현 근무지에서 개선되기 원하는 사항은 임금인상(48.6)과 근무시간/환경(40.4%) 이었다. 물리치료협회에 대한 건의 사항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단독개설 추진(73.1%)이었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로 직무만족과 직장에착을 비교한 결과, 성별로는 별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40세 이상에서 뚜렷이 직무만족과 직장에착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대졸 이상의 직무만족이 전문대졸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결혼 여부나 종교 유무별로는 조사대상자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한편, 병원 근무경력별로는 15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상인 경우에 현저하게 직무만족과 직장에착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직급 및 월급별 비교에 있어서는 직무만족의 경우 직급간이나 월급여 액수별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직장에착은 직급이 높아질수록 뚜렷이 증가하며 월급여별로도 차이가 나는 것이 발견되었다.

5. 조사대상자의 근무환경별로 직무만족과 직장에착을 비교한 결과, 먼저 근무기관별로는 대학병원이나 보건소/복지관 등의 경우가 병원급이나 의원급에 비하여 직무만족과 직장에착이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무기관 내에서의 물리치료실 위치별로는, 1~3층의 경우 직무만족도에서 별 차이가 없었으나 지하실에서 근무하는 치료사는 현격하게 만족도가 낮았으며, 동료 물리치료사수와의 관련성을 보면, 5인 미만이나 10인 이상의 경우가 5~9인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았다. 다만, 물리치료실 위치나 동료 인원수 모두 직장에착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한편, 주당 근무시간 및 일평균 치료환자수

별로 직무만족과 직장애착을 비교해보면, 근무시간의 경우 직무만족도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반면 직장애착은 44시간 이하가 그 이상에 비하여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일평균 치료환자수별 비교에 있어서는 직무만족이나 직장애착 공히 중간수준(21~25명)에서 가장 높다는 점이 흥미로운 사실로서, 일평균 환자수가 26명이 넘어서거나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두 변인 모두 감소하였다. 끝으로, 물리치료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충분성 여부별 비교 분석에 있어서는, 직무만족의 경우 응답자간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나 직장애착은 '불충분'으로 응답한 사람이 '보통'이나 '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 고 문 헌

- 김명훈,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대한물리치료사학회지 8(1)107-114,2001.
- 김명훈 외 13인: 물리치료학 개론, 제3판, 대학서림 1993
- 김인숙, 물리치료 의무기록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대한물리치료사학회지, 11(8) 1990
- 김종대, 물리치료사에 있어서 물리치료사고의 경험에 관한 연구, 대한물리치료사학회지.9(1) 69-80, 2002
- 남철현,김상수,배현정: 물리치료실 자립개설에 물리치료사의 의식도, 8(2)11-17, 2001
- 대한의학협회,: 의료관계법령집, 1983
- 라기용,오영택,문향미,배성수,전계균, 한국물리치료사의 근무현황 조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10(1),229-239,1998
- 배성수,김중선: 물리치료 임상기록 전략, 대한물리치료학회지,10(2) pp133-148, 1998
- 이충휘, 물리치료사의 업무 관련성 스트레스, 대한물리치료학회지 1990;2(1):65-74.
- 송주영,김형남,조귀순: 물리치료사의 자립개원, 대한물리치료학회지 8(1):81-89, 1996.
- 전계균, 물리치료사의 근무실태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1991;3(1):9-38.
- 최은경, 항만하역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한금림, 물리치료사의 업무성 스트레스 유발요인과 직무만족도와의 상관관계,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홍준현: 의무기록 완전성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1979.